

정하킴, 김라티파의 기도편지 (2024. 4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요르단은 현재 봄 날씨지만 5월부터는 금세 무더워집니다. 요르단은 얼마 전 늦은 비(4월 초, 신명기 11:14)가 내렸고 이른 비(10월)가 오기까지 6개월간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메마른 기간입니다. 특히 저희가 사는 곳은 광야 위의 도시라서 모래 등 먼지가 심합니다. 그런데 그 누렇게 짙게 갈라진 광야가 비가 조금이라도 오기 시작하면 금세 초록으로 군데군데 물들다가 비가 자주 내리는 시기에는 초원으로 바뀝니다. 여름에 이 도시의 광야를 보았던 사람들은 전혀 믿지 못할 광경이 펼쳐집니다. 물은 참으로 생명줄입니다. 메마른 사람의 영혼도 말씀의 생수를 마시면 소생합니다. 이 지역의 요르단인, 시리아인들이 하나님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심 받아 생명의 꼴을 누릴 것을 믿습니다.



교회동역자 & 현지인식구들

드디어 자동차를 구입했습니다^^ 한국 중고차인데 미국으로 수출되어서 한 개인이 사용하다가 요르단으로 작년에 수입된 차입니다. 사고 이력이 있어서 비교적 저렴하게 구입했지만, 경미한 사고였고 수리도 잘되었습니다. 중고차들을 꼼꼼히 조사해 보면 사고나 렌트 이력이 있고, 주행거리를 조작한 의심의 정황이 있음에도 가격이 너무 비싸서(요르단 세금 때문에) 5개월 동안이나 차를 검색했습니다.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덕분에 잘 구입했고 감사드립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로 귀하게 쓰임 받고 안전운행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제 차량도 생겼고 지난주부터 난민 방문팀들 중 하나의 리더로 다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리더들과 동행하며 함께 말씀을 전하고 또 리더들마다 다른 스타일을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단독으로 난민들을 방문하고, 외부에서 방문객이 오면 그들과 함께 난민 가정들을 방문합니다. 방문객(단기팀)은 아랍어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영어와 아랍어를 써가며 통역도 해 주어야 합니다. 두 언어 중 어느 하나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것이 아닌데도 동시에 2개의 언어를 하려니 정말 진땀이 흐르네요. 앞으로 최대 15 가정을 순차적으로 맡게 되는데, 각 가정을 2주에 한 차례 정도 방문하고 그 중 한번은 생필품 패키지를 전달할 것입니다. 방문해서 무슨 말씀을 전할지 미리 준비하겠지만, 그때마다 성령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대로 다른 말씀을 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하는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말씀이 그들의 귀가 아닌 가슴에 박히게 됩니다. 먼저 그들에게 친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줘야 합니다. 물론 무슬림들은 구약성경의 기초적인 지식은 갖고 있습니다만 그들의 선지식은 성경과 다른 부분이 많고, 예컨대 구약성경의 인물에 대하여 말하자면, 성경의 기록이 훨씬 자세하고 방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말씀의 깊이도 필요합니다. 열정적인 종교생활을 통해 그들이 그토록 갈구했던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비로소 발견하게 되길 기도해 주세요.

자녀들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빈이는 전 과목 아랍어로 공부하니, 당연히 다른 현지인 친구들에 비해 이해력이 떨어지지만, 아직 이 학교로 전학 온 지 겨우 7개월이 조금 더 지난 것을 감안하면 참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뜰이나 아랍 아이들이 거친데 시골 아이들이다 보니, 아이들과 상대하는 것이 만만치 않아서 티격태격하고 기분 상해서 오다가도 이 과정을 이겨내는 법을 스스로 터득하는 중입니다. 동시에 사춘기에 접어들다 보니 이런저런 스트레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단 강 건너 옆 동네(이스라엘-팔레스타인)는 여전히 시끄럽네요. 뉴스를 통해 아시다시피 이제 분쟁은 이스라엘-이란의 대결 구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향하던 이란 미사일의 파편이 요르단으로도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만, 염려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요르단은 별 영향 없습니다. 그러나 중동에 속히 평화가 찾아와서 더 이상 피를 흘리거나 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 팀을 인도하며 지치지 않도록,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은혜롭게 전하도록. 먼저 저희부터 주님과 친밀한 교제로써 충분한 영적 양식을 공급받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을 전하도록.
- 현지교회 성도들, 요르단인 담임 목사님, 외국인 사역자들과 아름다운 동역이 이루어지도록.
- 예빈이와 하심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주일학교를 통해 은혜 많이 받도록. 학교에서 즐겁게 생활하도록.